

| 사회적 대화, 새 역사의 뜻을 달다_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문재인 대통령, “경사노위는 의결기구”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참여

국민연금 개혁방안,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경제사회 핵심 현안 논의 예정

이세종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8년 11월 22일 14:00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출범식과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난 6.12. 경사노위법 시행 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붙임2. 참조)해왔다.

* 개요: '16.1월 이후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1.31.~11.21.)

* 구성(6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간사)

경사노위는 위원구성은 물론 의제와 운영방식에서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모습을 차별



화했다. 양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사용자단체(경총·대한상의), 정부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붙임3, 참조)를 대폭 확대했다.

* 구성(18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공석), 청년대표, 여성대표, 비정규직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 대표, 중견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위원장, 경사노위 상임위원,

의제 또한 고용·노동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경제 및 복지 문제까지 다루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기로 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주체들의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와 이해당사자들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타협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바꿨다.



이날 출범식은 ▲경사노위 위원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 ▲위원들과 대통령과의 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결과 승계 등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촉장 수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자신의 요구를 모두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 양보와 역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 주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시대적 과제 해결이

중요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사회적 충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경사노위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출범식 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승계를 의결했다.

* ▲특별위원회(1개): 국민연금과 국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의제별위원회(4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업종별위원회(1개): 금융산업 위원회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에도 합의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시한과 구체적인 안건은 발족 후 국회일정을 감안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경사노위 출범 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문(붙임 5참조)도 의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 대화가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노사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함께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춘추관 기자브리핑

출범식과 1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황덕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으로 자리를 옮겨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문성현 위원장의 기자브리핑 전문이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본회의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 앞서서 새롭게 위촉된 경사노위 위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첫 회의에 참석하셔서 저희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에 대한 각별한 의미, 기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원들 모두 많은 의견을 대통령님께 전달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위원은 오늘 합동 기자 브리핑을 했고, “앞으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의견을 대변하겠다. 본인이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여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대신 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작년 9월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고, 이제 출범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

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은 올해 연세가 많으신데, “10개월간 많은 노력을 해 와서 오늘 소중한 출범을 하게 돼서 뜻깊다.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이 경사노위에서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연수 공익위원은 “앞으로 대화가 구체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경사노위는 노사가 중심이 돼서 논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합의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 아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 대화가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노사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함께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백브리핑이 있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경사노위 전폭 지지)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다.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주겠다.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 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참여)

문성현 위원장 “법이 개정되고 반 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울컥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다”라면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3, 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 분석한 적이 있다. 징의행위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을 분석해보니 차령산맥 이복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담당을 했고,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더라. 이런 분이 대통령이시고, 또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또 그 어느 분보다도 개방적 자세를 가진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계시다. 그 분이 위원장에 계실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까 김진 변호사가 차령산맥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를 널리널리 알려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붙임1

대통령 인사말씀

오늘 정말 고대했던 날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논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끈기 있게 위원회 출범을 이끌어주신 문성현 위원장님과 위원회 참여를 결정해 주신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 복원과 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 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입니다.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만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습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리도 20년 전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입니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랜 기다림과 큰 기대를 가지고 위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원회가 사회적 충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합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일방의 희



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습니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끌어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양보와 타협이 상생과 연대를 만든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공공부문과 금융산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월급의 일부를 부담하고 기업이 같은 금액을 적립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 대신 노사합의로 교대제를 개편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면서 고용을 늘린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합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산하에 설치될 의제별, 업종별, 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회 안전망 개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 안전, 디지털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같은 우리의 장기 비전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하계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어 성과를 쌓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된 첫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

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께서 더욱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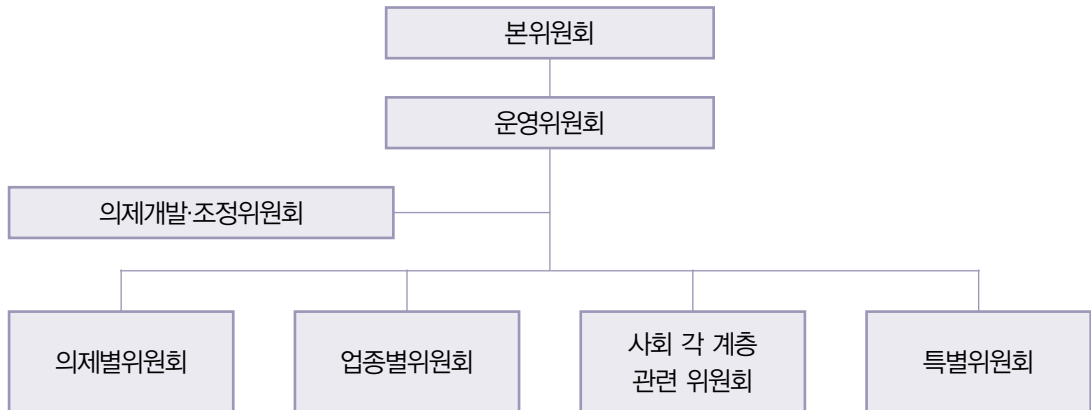
붙임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일지

- '18. 1. 11.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 '18. 1. 25.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결정
- '18. 1. 31.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적 대화 복원 원점에서 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개 시대적 과제 해결하자는 데 합의)
- '18. 4. 3.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합의)
- '18. 4. 23.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
- '18. 5. 22.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 '18. 5. 28.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선언
- '18. 6. 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안
- '18. 6. 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
- '18. 6. 27.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 '18. 10. 12.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국민연금 개혁방안 의제 채택 합의)
- '18. 11. 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붙임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체 구조



- (본위원회) 각급 위원회 구성, 운영, 합의문 등 위원회 소관 중요사항 심의·의결
 - * 구성(총 18명): 위원장 및 상임위원, 노동계 대표 5명(양대 노총,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포함), 경영계 대표 5명(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 포함), 정부 대표 2명(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위원 4명
-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상정 의안 검토·조정, 본위원회 위임 사항 처리
 - * 구성(총 10명): 상임위원(위원장), 노동단체 부대표 2명, 경영단체 부대표 2명, 정부 차관 2명(기획재정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상정 의안 검토·조정, 기타 위원회 산하 회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
 - * 구성: 상임위원(위원장),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명, 경영단체 실무책임자 2명,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2명
-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주요 사회적 의제, 업종별 현안 협의
 - * 구성(총 15명 이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 공익위원, 노사 동수 원칙

붙임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번호	구분	직위	성명
1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2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태주
3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5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6		민주노총 위원장	공 석
7		청년유니온 위원장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이사	김병철
8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이남신
10		한국경총 회장	손경식
11	사용자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1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
1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호갑
14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15	공익위원	前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前 국회의원	이계안
16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신연수
1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박봉정숙
18		민변 노동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 진

붙임5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노사정 각 주체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업종·특별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